

□ 會員欄 □

「UMR」

金 聖 中
(全北大 工大 副教授)

직업은 못 속인다는 말이 있다. 본인도 교육에 종사하는 자이기에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정책에 늘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새로운 문교정책이 발표될 때 마다 열심히 귀를 기울여 보며, 때로는 이번 정책은 현실하고 거리가 먼 착상이라든지, 때론 참 좋은 정책이라든지 해가며 혼자 속으로 생각해 본다. 대부분 전자의 경우가 많고, 후자의 경우가 적었는데 그나마 박수를 보내고 싶었던 그런 정책이 얼마 안가서 다시 옛날로 환원해버리게 되는 것을 볼 때는 가슴이 아프다. 사회문제, 정치문제 등을 늘 같이 생각하여야 하는 것이 문교정책이기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순수한 교육적인 여건에는 변화가 없다고 해도, 사회적, 정치적인 여건이 변함에 따라 교육정책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 본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 때로 외국의 안정된 대학교육이 부럽기도 하다. 그러나 외국의 대학교육정책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맞물리가 없기에, 본인은 그저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이지 그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모방하듯 도입하기를 바라고 싶지는 않다.

본인은 3년 전에 미국 University of Missouri - Rolla에서 잠시 동안 학생이 되어본 적이 있다. 이 대학교는 미국 중부의 미조리주에서 세운 주립대학으로서 Columbia에 본부가 있고, St. Louis, Kansas City, Rolla 등지에 분교를 가지고 있는 대학교로서, 미국에서는 신문방송학과로 유명하다고 한다. Rolla 에는 주로 공과계통이 대부분이다. 전기공학과는 학생이 1,000명, 교수가 50명쯤 된다. 대학원과정은

1. Circuits - Electronics
2. Communications - Signal Processing
3. Computers
4. Control

5. Electrical Energy Systems
 6. Electromagnetics
 7. Physical Electronics
 8. Solar Energy
- 등, 8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UMR이 있는 Rolla는 조그만 시골도시로서, 대학수업료는 학기당 1,450 \$ (미조리주민이나, Research Assistant는 400 \$)이며, 생활비로는 방세 100 \$, 식사 100 \$로 매월 200 \$이면 해결이 된다. 본인이 갔을 때엔 그곳에 유학온 한국학생들은 전부 Research Assistant로서 매월 720 \$씩 장학금을 받고 있었으며, 가족을 데리고도, 어렵기는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보았다. 기후도 한국과 똑 같아 유학을 하고져 하는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대학이다.

매 주마다 레포트를 써내고, 한 학기에 다섯번씩 시험을 치르는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새로운 교육자의 자세로 그곳에서 처럼 해 보려고 하니 잘 안된다. 그래도 자주 시험을 보고, 답안지도 바로 채점하여 그 다음 날 돌려 주고, 옛날에는 책만 가지고 하던 것을 이제 강의 노트도 준비해 보고 하면서 그곳에 있을 때 좋은 교육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해 보려고 노력한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본다.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의 선진화는 문교정책 당국자에게만 의지하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대학교육을 맡은 자들이 먼저 선진국들과 같은 교육방법과 열의로 교육을 실행해 나가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이 더욱 빨리 선진화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많은 대학교에서 구미 선진국에 못지 않은 시설과 열의로서 좋은 교육이 실행되기 시작했다고 믿으며 기쁜 마음으로 빛을 놓는다.